

농촌여성의 사회교육

이금옥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1. 사회교육의 정의와 특성

사회교육은 학교에서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넓게 정의할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을 추가하는 수도 있으나 청소년교육, 또는 성인교육이란 용어가 따로 있으므로 그러한 대상의 규정을 꼭 할 필요는 없다.

○ 누가 가르치나(사회교육자/ 사회교육전문요원)

학교교육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나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으나 사회교육은 누구나 가르치거나 담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학교와는 달리 교육이 강의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도, 시범, 안내, 조언, 협조의 형태로도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교육자는 교사, 강사, 교수, 교관, 지도사, 개발요원, 조정관, 자원인사 등의 다채로운 호칭을 갖는다.

○ 교육을 받는 사람(학습자/ 교육대상)

사회교육을 받는 대상은 학생이라 부르기보다는 학습자, 교육생, 연수생, 훈련생, 교육참여자, 수강자들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일정한 사회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강의를 듣거나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교육의 과정

사회교육은 ① 주로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② 계획의 실천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 또는 프로

그램을 융통성있게 짜고 ③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내용과 방법은 통합된 형태로 주어지기도 하며 ④ 평가도 시험이나 고사의 형태보다는 교육참여자의 교육에 대한 반응이나 자체평가와 같은 간단한 방법을 쓰거나 평가가 없을 수도 있는 특성을 갖는다.

○ 교육체제 및 제도

학교교육은 교육부가 주관하여 체계있는 행정체제와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교육은 정부 각 부서가 거의 모두 관련이 되고 대부분의 사회 및 경제기관이나 단체들이 사회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체제를 가지고 통제, 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

2. 사회교육 용어들

사회교육은 adult education, non-formal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등으로 쓰이는데, 이를 우리말로 사회교육 또는 그 용어를 직역하여 성인교육, 비정규교육, 계속교육이라 하고 있다.

○ 성인교육

사회교육이 성인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는 수가 많고 특히 사회교육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social education이라고 하기 보다는 adult education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비정규교육(non-formal education)

학교교육은 정규교육 및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사회교육을 비정규교육이라 부를 때가 있다. 사회교육이 학교교육에서의 정규과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이미 밝혔듯이 그러한 정규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정규교육만이 아니라 도서관, 전시회 및 대중매체를 통한 형식교육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 non-formal education이란 용어는 학교에서와 같은 교실을 이용한 조직적인 학습지도도 뜻하지만, 그 교육이 정규학교의 졸업자격과 관련이 없는 비정규교육을 뜻하는 것으로서 1960년대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이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가에서와 대부분의 국제기관을 통하여 많이 쓰여지고 있기도 하다.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계속교육이란 말은 학교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이미 정규학교를 다녔던 졸업생들에게 계속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활동을 continuing education이라 한다.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은 한 마디로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두고 행하여지는 교육이다. 평생교육이란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그동안의 교육이 거의 학교교육에만 치중하여 왔고 일부 청소년 마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이미지마저 악화시킬 만큼 사회정의 실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체제를 파하고 누구나 평생을 두고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의 발전을 최대한 도모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평생교육 체제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평생교육은 1980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29조 5항에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평생교육이란 말이 제도적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회교육과 구별된다. 그러나 인간의 평생을 통하여 학교교육을 받는 기간은 평생기간의 1/4~1/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사회교육을 받는 셈이 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중에 있어서 사회교육이 클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주장하는

바탕이 학교교육의 개선과 함께 사회교육의 강화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생교육이란 말을 쓸 때는 사회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이 있다고 본다.

평생교육의 이념은 속성의 하나로 특히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를 덜 받았거나 받지 못했던 집단 즉, 상대적 교육결손집단(educational disadvantage group)을 위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크게 강조한다. 교육의 대상은 결코 소수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나 특권집단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 전체의 구성원 즉 모든 국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대상에는 결코 남녀간의 성별 불평등이나 노소간의 연령별 차등성, 학력에 따른 격차, 직업에 따른 격차 등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학교교육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여성과 노년층, 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 그리고 육체, 노무, 단순, 생산직 종사자들이야말로 평생교육의 가장 중요한 대상집단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평생교육의 이념에 있어 여성교육 그 중에서도 여성을 위한 학교교육이 아닌 '여성사회교육의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여성 중에서도 농촌여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도시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소외감을 해소해 주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농촌여성 사회교육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가족구조와 경제구조, 직업세계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쳐 급속하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이들 사회변화와 제반 양상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전통사회에서와는 달리 필연적으로 각종의 사회교육 활동을 통해 계속학습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환경 및 상황변수로 작용하므로써 농촌여성의 사회교육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 가정의 변모와 농촌여성의 사회교육

현대사회로 이행되 오면서 가족구조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부부 중심의 핵가족 제도가 확산되면서 가정 안에서의 성역할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첨단과학 기술문명의 소산인 생활의 자동화와 함께 소인수, 소자녀 가족관으로 인한 여성의 자녀 출산, 양육부담의 감소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선용 욕구를 크게 증대시키게 되었다. 생활·문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활용 욕구의 증대는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여성의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남성노동력이 도시로 유출함에 따라 농업노동력에 있어 기존의 단순 보조자적 위치에서 평등하거나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가정내에서의 영농이나 가계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역할이 과거와는 두드러지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농가가계관리는 물론 영농의사결정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시되고 있어 이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각종 사회교육에의 참여가 요구된다.

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직업세계의 변화와 여성사회교육

전근대적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이란 대체로 미숙련 단순직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여성 취업이란 자연히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직업적 동기유발과 보상의 전 과정에 있어 외재지향적이며 타율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식정보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직종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종사할 고급 두뇌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성도 지금까지의 단순 생산직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차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의 여성 점유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직업세계의 구조적 변모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는 이에 적응,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동기와 학습욕구를 강화시켜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여성 2,012명을 대상으로 조사(1989)한 바에 의하면 타인에게 일감맞기 사업을 권유하고 싶다는 사람이 70.6%, 현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일감맞기 사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비율이 90.3%(1,817명)인 점을 보더라도 여성의 사회활동내지 직업세계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다. 법제도 및 사회의식이 변화와 여성 사회교육

여성에 관련된 각종 법·제도가 변화되고 있으며



각종의 여성단체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욱 여성의 사회 참여가 촉진되고 있다. 먼저 개정된 가족법을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시행되었던 가족법을 1989년 12월 제 147회 정기국회 때 대폭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이 가정에서부터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모자세대를 위한 모자복지법이 1989년에 제정되었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1990년에 제정되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법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같은 법·제도적인 기반 조성의 영향으로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촉진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또한 여성의 참여동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농촌여성 사회교육의 이념

가. 민주주의 이념

교육을 통하여 길러진 인간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민주 시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교육의 제도와 방법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등하고 개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에서도 인격의 완성 및 전인교육의 개념과 더불어 자기개발, 자아실현 등 개인의 성장을 최대한으로 돕도록 하

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학교교육에 대한 연장 및 보완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성인들에게 학교교육을 보상하는 의미로도 사회교육이 중요성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나. 복지사회의 이념

교육이 일차적인 목적은 개인적 성장에 있지만 이를 통한 사회에의 공헌과 교육을 통한 사회의 발전 역시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복지사회의 이념은 복지가 부분적으로 잘 사는데 만족해서는 안되며 전체적, 균형적, 전인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삶을 인간화하는 인간교육의 이념으로, 또한 자유스런 학습을 통한 정신적 풍요의 성취, 개인적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나선형으로 향상시키는 사회교육 이념으로 표현한다.

다. 평생교육의 이념

평생교육의 이념은 모든 개개인들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인적인 성장발전 및 환경과의 조화속에서 사회적인 변화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서 그 단계 및 수준에 따라 요청되는 제반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관 및 새로운 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 장소, 프로그램, 교사, 교재 등을 갖추어 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 학습사회 건설의 이념

모든 사회가 교육의 장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학습사회의 건설이 요망된다. 왜냐하면 사회교육은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가르치며 삶의 현장과 모든 경험이 교육의 과정이 되는 교육이 보다 알차게 이루어질 때 개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가 함께 공존된다.

마. 개인의 자아실현

이제 여성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선천적으로 여성의 능력이 더 열등한 것도 아니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가 경향이 적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도의 그늘속에, 전통적인 의식에 습관되어져 왔던 여성은 이제 자신의 욕구와 잠재력을 인간으로서의 조화로운 발달에, 성취의 과정에 발맞출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제까지 억압되었던 자아가 갑자기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자신의 부단한 자기개발과 의식이 향상 되는데 따른 조직적인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히 대두된다.

5. 농촌진흥기관의 사회교육 실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생활개선사업은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에는 빈곤에의 탈피를 위한 교육을 생활개선구락부를 대상으로 주로 실시하였다. 70년대에는 주곡자급의 실현, 대체식품의 개발, 산림자원의 보전에 역점을 두고 국내부존자원의 고도 활용, 매탄가스 이용시설 지도, '응용영양 시범마을 육성, 농번기공동취사장 운영, 농번기 타카소 등을 주 내용으로 교육하였다.

80년대 후반에는 농촌의 사회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여 집안일, 농사일에 있어서 농촌여성이 역할이 확대되었고, 농촌여성의 요구도 다양하여 종래 실시하였던 내용과 방식으로는 학습자를 만족시켜 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다양화에 걸맞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농촌여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파악, 다양화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둔 교육을 1987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가. 농촌여성 특별교육

농촌여성 특별교육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지역사회 문화발전의 주도자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각 도농촌홍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대상은 생활개선부 임원, 여성후계자, 후계자가족 등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에 돌아가 교육내용을 이웃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과정 선정은 지역사회 농촌여성 중에 동질성과 공동 목표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예를들어 농촌여성지도자반의 교육대상은 시군 읍면단위 생활개선회장, 여성후계자, 후계자가족 등이다.

교과목의 선정은 생활개선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교육 수행전에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과목을 선정하는데 농촌의 건전한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것, 지역사회 및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여성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는 것과 선진지 견학등의 과목을 선정하여 정서함양을 도우며 우리농산물의 생산 및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기간은 2~3일간 합숙교육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기는 과정별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의 영농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장소는 도원 또는 시군에 있는 농민교육 시설 기타 집합교육에 알맞는 시설을 활용한다.

교육에 대한 사전 홍보를 교육의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실습이 가능한 과목은 실습할 수 있도록 하며 사례발표, 토론, 대화등의 참여식 교육과, 선진지 견학으로 교육 효과를 높인다. 기관 활용은 예산 범위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시군의 우수 생활지도사를 교환하여 활용한다.

농촌여성 특별교육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교육교재, 교육참석자의 급양비 및 실습재료비는 일부 국비 지원하고 있다.

나. 농촌여성 과제교육

생활개선 과제 보급의 활성화로 농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농가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개선 실천농가주부, 생활개선부원, 농민후계자 가족, 여성후계자, 4H연장 여회원, 지도공무원 가족, 고령층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농촌부녀자 중 동질성과 같은 요구를 필요로 하는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생활개선 부원 교육과정(생활개선 부원), 후계자 가족교육(후계자 가족, 여성후계자), 신부교실(성혼을 앞둔 미혼여성, 4H 여회원)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내용별로는 생활개선 중점과제 교육이 있으며 그밖에 취미, 교양과제, 노인역할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목의 선정은 교육과정별로 생활개선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 수행전에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과목을 선정한다.

젊은 여성을 주 교육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농촌정



착에 대한 신념을 갖는 과목을 선정하고 우리농산물 애용에 관한 내용을 공통으로 선정한다. 또한 시사성 있는 농정해설 시간을 삽입하여 농촌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교육기간은 시군실정 및 교과운영에 따라 1일 또는 계속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장소는 시군지도소의 교육 시설 및 기타 농민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활용한다.

교육에 대한 사전 홍보로 요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생활지도사의 시군간 교류, 일감사업의 정보교류로 교육효과를 높인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교육교재의 일부를 지원해 주며 그 밖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에서 확보하여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한다.

(1) 현재 시군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생활반

- 첫째단계 - 합리적인 피복관리
- 둘째단계 - 저공해 세계 만드는 법
- 셋째단계 - 농사일과 농작업복
- 넷째단계 - 맵시있는 옷차림

○식생활반

- 첫째단계 - 우리농산물 애용

둘째단계-식품 가공과 저장
셋째단계-우리의 식생활과 쌀

○주거환경 개선반

첫째단계-농촌주택의 현황과 개선할 점
둘째단계-농가의 부엌개량 요령
셋째단계-목욕실 및 화장실 개량 방법
넷째단계-농가의 집안꾸미기

○가정화목반

첫째단계-가족간의 바람직한 대화법
둘째단계-노인에 대한 이해 및 역할

○생활문화반

첫째단계-바른 예절의 생활화
둘째단계-놀이문화의 올바른 이해
셋째단계-놀이문화의 전승, 발전

(2)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지도하고 있는 생활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의생활

- 농작업 유형별 작업복 착용 및 농약방제복 착용
- 현옷 재활용, 생활소품 제작, 이용지도
- 저공해 세제 만들기

(나) 식생활

- 건강을 위한 식생활 관리
- 균형식 실천지도
- 어린이, 노인의 영양관리
- 한국형 식생활 정착 지도
- 쌀 중심의 식생활 정착
- 과학적인 조리가공 저장법
- 우리 농산물 애용

(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 편리한 주거환경 가꾸기 (부엌+목욕실+변소개량)
- 주택관리 및 환경미화, 부엌설비 및 기구관리
- 농촌환경가꾸기

(라) 농작업환경개선

- 비닐하우스내 작업시 건강관리
- 농약안전 사용과 농부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천

- 농민건강관리실,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

(마) 가정관리

- 생활설계수립(가정관리, 시간관리, 가사분담, 여가선용)

- 가계부 기록, 금전관리 및 재산증식, 소비생활(바) 가족관계

-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하기

- 자녀교육, 노인의 건강관리 및 역할 개발

- 집안전통, 가훈 익히기

- (사) 농촌여성 일감맞기 활동

- 지역 특산품 개발, 판매

- 농공단지 관련 및 입가공 알선

- 생산제품 홍보 및 농산품 도시 직거래 알선

- (아) 생활개선회 육성

- 마을청소, 꽃길조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

- 도시부녀회와 자매결연으로 농산물 직거래

- 마을구판장 운영

- 공동과제포 운영

6. 앞으로의 방향

첫째, 농촌여성 사회교육 실시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과 지역의 교육적 기능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이동의 인격형성에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모교육과 함께 상담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격형성에 필요한 자원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우선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단위의 각종 사회교육시설들이 시대적 요청에 맞게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활동에 필요한 지도자의 양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

네째, 농촌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사회교육 참여의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문제를 대처하고 현명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촌여성 사회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지도·조언과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한 교육참여 유인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